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 전 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각계 원로들의 말씀이 국민들에게 나라가 온통 썩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니...

공정한 사회는 없고 부패공화국만

토해양부이고 보면, 최근 제주도에서 드러난 부정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월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과제로 들고 나왔다.

패공화국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로 정치(31.2%), 법조(14.0%), 언론(12.1%)을 지목하고 있다.

기고



김병인

아침에 광주일보가 배달되면 가친(家親)이 먼저 보신 후 그 다음에 내가 보게 된다. 가친은 아주 오랜 광주일보의 독자이다.

지역민의 목소리 대변해 주기를

이번 명확히 인식해야 할 때다. 최근 반값등록금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광주는 전체 인구의 40%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재학생 2만 명이 넘는 종합대학도 2곳이나 있는 교육도시다.

문제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대학 진학률을 기록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문제가 산재해 있다. 국민의 의견도 갈라져 있는 것 같다. 당장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 투표가 곧 발의될 예정이고, 예산 문제도 뒤따를 것이다.

NGO 칼럼



김영환

역사는 변화야 하고 변혁하지 않으면 소멸하거나 멸망하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한민족 건설을 위한 제언

개국에 의해 분할돼 동서로 분단됐으나 서독과 자유진영국가들의 협력에 의해 통일 국가를 선포했다. 그 여파로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붕괴됐고 소련 연방국가들은 물론이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을 휩쓴 탈냉전과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권위적인 체제를 유지하다가 봄의 여인 재스민 혁명으로 대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법정전염병 결핵 예방·퇴치 근본대책 마련해야

길거리의 노숙자가 줄어들지 않아서인지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다. 고대 인도 아리아베다교 성전에서는 결핵을 '모든 질병의 왕'이라고까지 했다.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국가 차원에 대대적으로 결핵 실재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려는 보건 당국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법정 전염병인 만큼 활동성 결핵환자에 중 결핵환자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읽은 페레스트로이카 웃으며 바퀴 돌아가야 한다.

이외에 세계에 굴복한 부끄러운 선군정치가 아닌 진정한 남북화해이고 민족통일회복이며 국민을 하늘처럼 돌보는 인덕정치·선덕정치일 것이다.

대한 전면적인 역학 조사 등 예방과 퇴치를 위한 전방위 체계 구축도 급하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시설

여야 영수회담, 상생·소통 정치 계기돼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33개월 만이다.

광주 미군기지 오염조사 왜 광산구 몫인가

광주 광산구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의 미군 주둔지 오염실태 조사를 함께 맡고 있다. 광산구의 정밀조사 요청에 국방부가 현행법에 따라 구청장이 맡아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無等鼓

우리 역사상 남녀차별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시대에 여성이 차지할 수 있는 관직은 대부분 궁중생활과 연관이 있었다.

우먼파워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